

대동제를 빛낸 인물들

한성대학교 축제가 시작된 1976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물들이 대동제를 빛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동제 아카이브에 포함된 1976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기사들을 통해 대동제 기간 동안 학교에 방문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문화재>

과거 한성대 축제에는 민속공연과 전통공연이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무형문화재의 기술을 보유한 인간문화재들이 대동제를 찾아주었다. 그중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의 모습이다.



1983년 5월 20일 제 8회 낙산축전의 민속초청공연에는 박계순선생님(인간문화재 3호) 이하 12인이 참여해 남사당놀이(무형문화재)를 행했다. 박계순과 김재원 선생님은 1980년 11월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¹ 이날 행사는 길놀이, 기원제, 박첨지놀이, 풍물놀이

¹ 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8KOR_A1927_2_0030862

버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특히 박첨지놀음과 풍물놀이가 눈길을 끌었다. 풍물놀이는 그 가락이 흥겨우면서도 힘찬 약동의 생명감이 있었으며, 김재원의 상쇠춤이 더욱 흥을 돋구었다.

남사당놀이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예인들이 널리 행하던 다방면의 한국 전통 민속공연이다. 박계순 선생님은 1953년에 남사당패의 단원이 되었고, 남사당 단장이었던 남편이 작고 후, 민속극회 남사당의 단장이 된다. 이후 '남사당놀이보존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공연과 기능 전수를 위해 노력하였다. 김재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중 꼭두각시놀음 기예능 보유자로 박계순 선생님이 맡고 있는 남사당의 일원이었다. 그 당시 남사당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뜯쇠로 큰 역할을 하였다.² 이들의 남사당놀이는 정치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 당시 사회의 문제점들을 풍자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삶을 이어 가게 하는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보여 주었다.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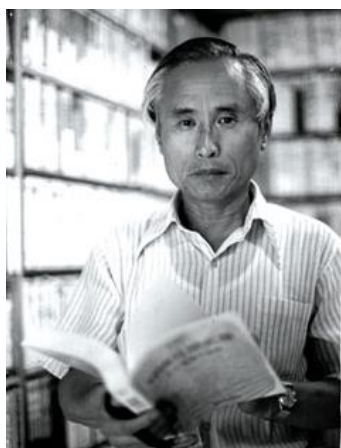
대동제에서는 한성대 학생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특히, 각 분야에 저명한 학자들의 강연회는 대동제의 품격을 높여주었다. 그중에서도 한성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물들의 초청강연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²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5417#home>

제3회 낙산축전을 맞이하여 1978년 6월 2일 오후 7시 대강당에서 연세대 김형석 교수의 <우리의 이상이란>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강연회는 청중들로 가득찼다. 김형석 교수는 <우리의 이상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참다운 민주시민의 인간성을 제시하여 많은 한성대 학생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형석 교수는 철학자이자 수필가,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다. 현재 103세의 나이에도 <김형석의 인생문답>, <백년을 살아보니>, <어떻게 믿을 것인가> 등을 펴내며 활발한 저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의 강연은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초청강연회에 민주화와 관련된 인물들도 많이 초청되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한겨레신문 초대 사장 송건호 선생과 사회운동가 백기완 선생이 있다.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언론인은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 신문기자라고 해서 어느 때는 이런 글을 어느 때는 저런 글을 쓰는 대서소 서기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라 글을 써야 한다.”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시절 한성대학교를 방문한 송건호씨는 위와 같이 기자를 정의하였다. 1985년 제 10회 낙산축전 5월 15일 오후 2시에 총학생회 사회부 초청으로 송건호씨가 <분단시대의 민족주의>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 강연은 강사가 강연시간까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소강당을 가득 메웠다. 송건호씨는 언론인이자 민주화운동가로 1975년 동아사태 때 사표를 낸 이후, 1970,80년대 해직된 기자들과 함께 민주언론운동현회를 만들어서 제도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건들과 비참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루었다. 80년대 이후에는, 군사정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변질하는 언론을 탈피하고,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한 신문을 만들고자 하여 한겨레신문을 창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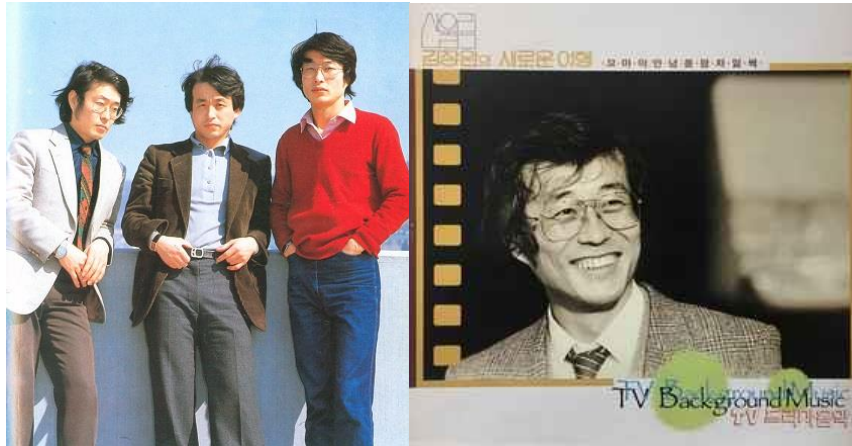


1988년 제 13회 낙산대동제 마지막날인 5월 26일 2시에 민주광장에서 백기완 선생의 초청강연회가 개최되었다.

백기완 선생 우리나라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큰 힘을 쏟은 민중, 민족, 민주운동의 큰 기둥이었다. 1960년 4·19 민주혁명, 1964년 굴욕적인 한일협정반대운동,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 1971년 유신헌법 반대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불리는 전두환 군부쿠데타 저지 운동 등 다양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설립을 주도하였다.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은 백기완 선생의 자작시 '뫼비나리'이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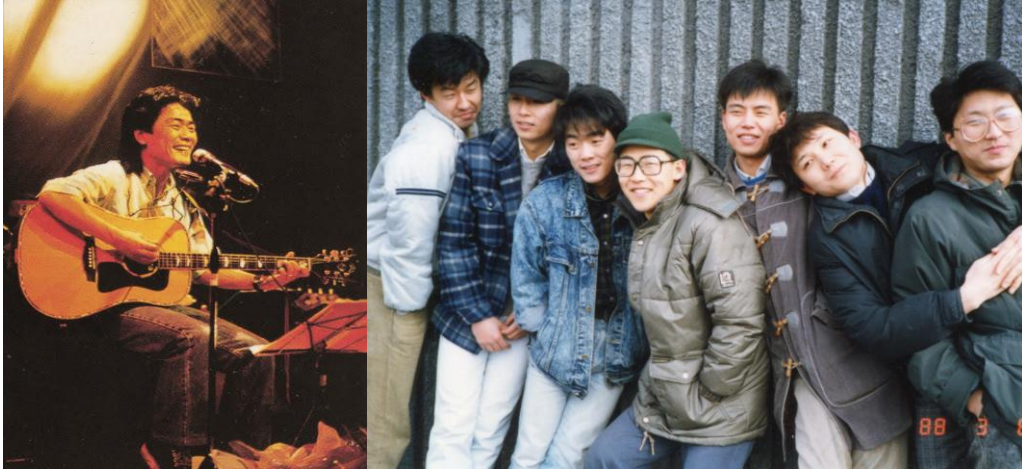
당시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초청가수로서 대동제 가요제나 공연에 참석했다. 이들의 음악은 대동제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한껏 분위기를 돋구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영상 혹은 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당시 과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하였다.



김창완은 1975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잠사학과를 나와 1977년 동생 김창훈, 김창익과 함께 락밴드 산울림을 결성했다. 1집<아니 벌써>, 2집<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를 연이어 발표하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동생들이 군대를 간 동안 준비해둔 앨범을 내며 기다리다 동생들의 제대 후 산울림 7집 앨범을 냈다. 이후 9집을 내고 해체했지만 김창완은 솔로로 활동하며 인기를 구가했다. 그중 1981년에 낸 7집은 명곡으로 가득 차 있어 후대에도 크게 칭송받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청춘>은 '응답하라 1988'에서 리메이크되어 다시금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81년 5월 15일 제6회 낙산축전 가요제를 찾은 김창완은 산울림이 아닌 솔로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동생들이 제대하기 전으로 김창완 솔로앨범의 노래들을 보여준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은

81년 당시 김창완이 <청춘>을 부르는 모습.



좌 김광석, 우 동물원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흥겨운 통기타 속에서 노래 부르는 김광석의 모습은 1992년 낙산가요제에서 볼 수 있었다. 1992년 5월 21일 오후 5시 제 17회 낙산가요제가 민주광장에서 개최되었고, 수많은 환호와 함께 김광석이 등장했다. 김광석은 대중음악에 포크송 붐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서정적인 멜로디와 진정성 있는 가사로 수많은 명곡을 남긴 전설적인 가수다. <나의 노래>, <거리에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현재까지도 그의 노래는 꾸준히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가수 최초로 1,000번째 소극장 공연을 기록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이제 김광석을 다시 볼 수 없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95년도 대동제 5월 21일 오후 6시에는 방송국 주최로 '제 21회 낙산가요제'가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가요제는 '돼지 먹따는 소리'라는 주제로 열렸고, 초대가수로 동물원이 섭외되었다.

동물원은 배영길(보컬, 기타), 박기영(보컬, 건반), 유준열(보컬, 기타)로 구성된 1980~90년대 포크밴드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물원은 위에 등장한 김창완과 김광석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이다. 김광석은 김창기, 유준열, 박기영, 박경찬, 이성우 등과 함께 초기 동물원의 멤버였다. 이들은 1987년 신촌역 부근 학사주점 '무진기행'에서 김창완과 함께 동물원을 결성했다. 데뷔 초 동물원은 '김창완의 비밀병기 그룹'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김광석은 2집 이후로 동물원에서 나와서 솔로로 활동하였다.

동물원은 대학생 밴드로 시작하며 청춘의 눈으로 본 일상을 꾸밈없이 가사에 담고, 간결한 선율과 울림이 있는 연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거리에서>, <변해가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혜화동>, <널 사랑하겠어> 등 많은 히트곡을 배출했고, 아직까지 리메이크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민중음악>

민중가요는 한국 현대의 서민적 노래문화의 하나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중가요 등 주류 노래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닌 대중들이 기존 대중가요 시장 바깥에서 구전 등의 독자적 유통구조를 통해 향유하는 노래이자 운동권가요를 뜻한다.³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노래문화로, 기존 데모노래에서 추가적으로 대중가요, 찬송가, 가곡,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포함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일어난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단순 데모 노래를 넘어서 새로운 경향의 저항노래가 유행하듯 생겨났고, 정부의 대중가요 탄압과 맞물려 민주항쟁 이후 노동 투쟁과 같은 시민운동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시위 현장을 넘어 대중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한다. 포크가 주 장르이던 시기를 넘어 후반기에는 락밴드가 대세를 이끌어가려 했지만, 이후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이

³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428>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민중가요(民衆歌謠))]

쇠퇴하며 민중가요를 향유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시위와 집회에서 부르는 노래만 살아남으며 더이상 인기를 유지하지 못했다.

유명 민중가수로 김광석, 안치환 등이 있으며, <아침이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민중가요도 있다.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어지는 민중가요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역사적사실을 기록한 <임을 위한 행진곡>, 세월호를 기억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이 있으며 <춧볼 하나>처럼 가요에서 민중가요가 된 노래도 있다.

한성대학교 대동제에도 여러 민중가수가 와주었다. 그 중 2번씩 출연한 최도은과 밴드 메이데이에 대하여 알아보려한다.



좌 최도은, 우 메이데이(한성대학교 신문 250호 12면에 실린 메이데이의 기사)

“저희 때는 민중가수라는 직업도 없었어요. 단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인천에 노동자들의 쟁의가 많았는데 그곳 노동자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러 갔어요. 그때는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어디에 가서 노래를 가르칠까 그러면서 살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조합에 가서 노래랑 울동 가르치면서 무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한 건데, 그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된 거예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한 7년간은 뭐 거의 봉사활동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딸은 만날 봉사만 다닌다'고 했었죠(웃음).⁴

1998년 5월 22일 오후 5시30분 대동제 속 행사인 민중연대 문화제를 통해 최도은은 이후 99년까지 한성대학교 대동제를 두번 방문했다. 최도은은 숙명여대 성악과를 나와, 5.18 민주화운동을 접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를 통해 감명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갖은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불나비>를 불러왔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집회현장을 다니며 노래를 통해 현장의 사기를 올리는 활동하고 있다.

1997, 98년 대동제 폐막식에는 밴드 메이테이가 연속 출연했다.

밴드 메이테이는 90년대에 등장한 락밴드로, 이전 민중노래가 포크가 주장르였다면 9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락밴드들은 민중가요의 흐름을 락음악으로 바꾸었다. 당시 한성대신문과 인터뷰를 따로 할 정도로 메이테이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도 처음부터 락음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민중가요를 주로 하다가 다양성을 갖기 위해 락밴드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민중가요의 한계성을 깨닫고 깊게 고민한 것이 보인다.

큐레이션을 마치며

과거 대동제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을 초청하여 강연회와 공연을 개최했다. 초청강연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학자들의 생동감 넘치는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큐레이션을 통해 강연회를 진행한 인물의 그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 또한, 학과에서 배우는 학문

⁴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99>

외에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마련해주어 학문 탐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 당시 유명했던 가수들의 초청 공연을 통해 과거에 향유했던 대중문화와 민중음악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초청 공연은 낙산가요제와 폐막식에서 이루어졌다. 이 큐레이션에 등장한 인물 외에도 대동제를 빛낸 모든 인물들을 통해 대동제 축제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여러 인물을 초청해 행사를 개최한 과거 대동제를 참고하여, 한정적인 인물 중심의 또는 연예인 중심의 획일화된 대동제의 모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